

임화와 종로

허 정*

차 례

- | | |
|--------------------------|------------------------|
| I. 서론 | IV. 해방기의 종로, 머뭇거림과 용기의 |
| II. 1920년대 후반의 종로, 민족해방 | 장소 |
| 운동의 중심 장소 | V. 결론 |
| III. 1930년대 중반의 종로, 이식 자 | |
| 본주의 소비문화의 장소 | |

I. 서론

임화의 시 중에서 종로가 등장하는 작품은 <네 街里의 順伊>(1929) <봄이 오는구나-사랑하는 동모야>(1929) <다시 네거리에서>(1935) <九月 十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1945) <서울>(1951) 5편이다. 이 시들은 카프 1차방향전환기에 2편, 카프 해산 직후에 1편, 해방 직후에 1편, 전쟁기에 1편이 씌어진다. 이 시들에서 종로는 임화의 의식 심부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가령 임화는 “불쌍한 거리여!”(<다시 네거리에서>)라며 종로 거리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예사였고, “웬일 인가? 너는 죽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 그렇지 않으면 다

* 동아대학교 강사

잇었는가?” 혹은 “원컨대 거리여! 그들 모두에게 전하여다오!”(<다시 네 거리에서>)와 같이 종로를 메시지의 수신자로 의인화하여 자신과의 대화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기에 쓴 <서울>에서는 목적지인 경복궁을 향하면서 시의 내용상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종로 거리를 무려 5행에 걸쳐 서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고향이 종로와 지리적인 거리가 있는 낙산임에도 불구하고 “내 故鄕의 鐘路여!”(<다시 네거리에서>)처럼 종로를 서슴없이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선행연구에서도 임화의 시에 나타난 종로의 위상에 주목하고는 있다. 그러나 임화 시에 있어 종로가 중요하다는 점을 별다른 논증 없이 기술한 글이 대부분이다. 이중에서 종로의 의미를 좀 더 심도 깊게 다룬 글에는 김윤식과 이명찬의 글이 있다. 김윤식은 임화의 시편에서 카프조직체라는 남성적 권력단체로 치닫는 욕망에 비례하여, 이와 심리적 균형을 이룰 누이 콤플렉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윤식은 누이 콤플렉스가 <네 街里의 順伊>에 잘 드러났다가 <다시 네거리에서>와 <九月 十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사라지지만, <서울>에서 되살아난다고 보며 임화의 시가 원점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한다.¹⁾ 그러나 김윤식은 이 시들을 임화의 내적인 욕망에 기대어 분석함으로 인해, 종로가 가진 사회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주목하지 못하고 종로를 임화의 내적 욕망이 투사된 단순한 배경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이명찬은 종로 네거리의 사회적인 성격에 주목하면서 이 시들에 나타난 질적 차이에 주목한다. 즉 이명찬은 임화의 시에서 종로 네거리가 낭만적 관념의 인형들이 현실 위를 폭주하던 공간으로부터, 낙백한 혼이 타락한 일상성을 구현하던 공간으로, 그리고 인민 주체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전해온 것으로 파악한다.²⁾ 이 연구는 임화 시세계의 변모를 종로 네거리가 가진

1) 김윤식, 『임화연구』 6판, 문학사상사, 2000, 185~218쪽.

사회적이고 공적인 성격과 관련지어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화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왜 하필 종로를 선택했는가’ 하는 점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식민지에서 해방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로라는 장소가 임화의 사상과 긴밀하게 결합된 장소였기 때문에 임화가 시에서 중요한 장소로 채택했다고 가정하고 있다. 임화가 단순히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종로를 채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학인으로서 그 사상을 거둬들이며 펼쳐나갈 곳이었기 때문에 종로를 시의 중심 장소로 채택했다고 본다. 즉 필자는 종로가 국면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했지만, 거기에는 사회주의자 임화의 현실인식이나 실천적 의지를 추동시키는 동력이 내재해 있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순이’와 ‘청년’이라는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마치 연작과 같은 느낌을 주며,³⁾ 임화의 시력에서 중요한 시발점이나 전환점에 위치해 있는 <네 街里의 順伊> <다시 네거리에서> <九月 十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⁴⁾ 이

-
- 2) 이명찬, 「네 거리를 고향으로 둔 시인의 운명」,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학회, 2001, 242~272쪽.
- 3) <네 街里의 順伊>에서는 순이와 청년이 연인관계로 나오는데, 청년은 감옥에 가 있고 순이는 이를 슬퍼하고 있다. <다시 네거리에서>에서는 순이가 시집가 어린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죽는다. 그리고 청년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九月 十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순이는 어디선가 죽고, 동무도 감옥에서 숨진다.
- 4) 종로가 중심장소로 등장한 위 3편과는 달리 <봄이 오는구나-사랑하는 동모야>와 <서울>은 종로가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감옥에 간 동무를 그리워하고 있는 <봄이 오는구나-사랑하는 동모야>에 잠시 형상화되고 있는 종로거리는 <네 街里의 順伊>에서 종로거리를 설명하는 문맥에 포함시켜 언급할 것이다. 남로당원의 관점에서 서울을 수복한 벽찬 감격을 토로한 <서울>에는 “오랫동안 /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 한숨으로 어리웠던 / 종로 한 거리를 / 앞으로 앞으로 달려”와 같이 종로의 형상이 5행에 걸쳐 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종로는 임화가 애정을 갖고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서울 곳곳의 많은 지명 중 하나로 등장할 뿐이다. 즉 이 시는 조선

시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해명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화가 <네 街里의 順伊>에서 주제화한 ‘민족해방운동을 주도 해나가는 노동 계급’의 형상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종로를 달구었던 민족해방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카프의 1차방향전환을 작품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구호였다고 보는 평가를 재고해볼 것이다.⁵⁾ 둘째, 카프해산이후 소비도시로 전락한 종로에서 계급적 신념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다시 네거리에서>가 한 장소가 지닌 역사의 지층을 은폐한 스펙터클에 대항하는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된다는 점과, 이후 임화가 단계론적 사유로 변모해가는 도정의 출발점에 위치한 시라는 점을 해명할 것이다. 셋째, 임화가 <九月十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에서 형상화 한 ‘머뭇거림’은 1937년 이후 갖게 된 조선의 특수성에 대한 각성과 소극적인 협력으로 전전한 일제말기의 이력과 관련된다는 점을 해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방기 임화의 문학이 조선공산당의 8월테제를 직수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해명할 때 임화의 시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변전되면서 연속성을 획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고, 이것은 사회주의 의식을 끝까지 견지했던 임화 시세계의 한 축을 해명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스펙터클이 일상화된 지금 이 시점

공산당이 확보하던 해방직후의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 대해 따로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 5) 이기인은 이복만·윤기정·조중곤의 견해를 토대로 카프의 1차 방향전환론이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품을 내지 못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고 본다(이기인, 「카프 방향전환론의 재검토」, 『한국언어문학』 52, 2004.6, 207쪽). 이러한 지적은 임화가 <네 街里의 順伊>를 쓰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국한시켜 본다면 타당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화가 <네 街里의 順伊>를 필두로 渡日(渡日) 직전까지 쓴 단편서사시 5편은 1차방향전환 당시의 과제(민족단일당인 신간회의 지도하에 조선의 민족적 정치운동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예술운동이 정치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함)를 시적으로 제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에서 문학이 대응해나갈 방향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점들을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 종로의 실상을 다룬 역사적 기록과 임화의 전체 시력에 기대어 해명할 것이다. 특히 종로라는 장소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종로의 실상부터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좀 길더라도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갈 것이다.

II. 1920년대 후반의 종로, 민족해방운동의 중심 장소

또 언밤이 가난을 울리는 그날에도
우리는 바람과 갯치 거리에서 만나 거리에서 헤어
골목뒤에서 의론하고 工場에서 xx하는 그때가
가장 즐거운 젊은날의 行進이었다.

그러나 이 가장 貴重한 너 나의 사이에서 한아 우리들 동모를 잡아
간 x는 누구며 그 일은 웬일이냐
順伊야— 이것은……
너도 잘알고 나도 잘아는 멸절한 事實이 아니냐
보아라— 어니 x이 도xx인가
이 눈물나는 가난한 젊은날의 가진 이 불상한 즐거움을 노리는 x하구
그 조그만 참말로 風船보단 딴 꿈을 안개치려는 간지런 마음하구
말하여 보아라 이 나라에 가득찬 고마운 젊은이들아—

順伊야 누이야
勤勞하는 青年 勇敢한 산아회의 戀人아……
생각해 보아라 오늘은 네 貴重한 青年인 勇敢한 산아회가
젊은날을 싸움에 보내든 그 손으로
지금은 젊은 피로 벽돌담에 달曆을 그리겠구나!

- <네 街里的 順伊> (『조선지광』, 1929.1) 부분

이 시는 창백한 지식인 오빠가 누이동생 순이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단편서사시다. 주된 내용은 감옥에 있는 애인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청춘의 정열을 행복으로 여기자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임화가 종로 네거리를 시의 배경으로 삼은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것은 임화가 자신의 시에서 조선의 구체적인 지명을 밀도 있게 형상화 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임화는 이 시에서 왜 종로를 주목했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 당시 종로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식민지 당시 서울의 공간 배치는 청계천을 경계로 이북의 조선인과 이남의 일본인이 서로 대치하는 형세를 이루었는데, 이때 북부 조선인 구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종로였다. 종로는 대한제국기 동양에서 가장 잘 정비된 가로(街路)로 칭송받았고, 종로의 상인들은 전국 최대의 상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차별적인 식민통치로 인해 본정(本町, 지금의 충무로 일대)이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에 종로는 끊임없이 쇠락해져갔다.⁶⁾ 하지만 종로 일대는 3·1운동부터 신간회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의 중심공간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했다.

연애에 집착하고 있을 무렵인 1926년까지만 해도 임화는 조타모를 사쓰고 본정과 같은 남촌을 떠돌던 모던보이였다.⁷⁾ 하지만 1926년 말 카프에 가입한 이후 임화는 활동 무대를 종로로 옮기게 된다. 임화와 같은 사회주의자에게 국한시켜 말한다면 종로는 1926년 12월 출범한 통일조선공산당(ML당)의 거점이었으며, 당시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던 신간회의 본부(종로 2정목 45번지)와 경성지회(청진동 12번지)가 있던 곳이었으며, 1927년 2월 15일 거행된 신간회 창립총회의 개최지(종로 YMCA, 종로 2정목 8번지)이기도 했다. 특히 1차방향전환 당시 신간회의 지도 이념 아래 민족해방운동에 박차를 가했던 카프 조직체의 사무

6) 전우용, 「종로와 본정」,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2001, 189~192쪽.

7)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940.2; 임규찬·한기형,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435쪽.

실 역시 서울청년회관(건지동 80번지)에 간판을 내걸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⁸⁾ 또한 입화가 <병감에서 죽은 녀석>에서 형상화한 6·10만 세운동도 종로 3가에서 발발하였다.⁹⁾

특히 종로 네거리는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화요회·북풍회와 경합을 벌였던 서울청년회(카프와 같은 건물을 쓴 단체)가 활동하던 기본 동선 중의 한 곳이었다.¹⁰⁾ 입화가 카프 해체 이후에 쓴 <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이 길을 흘러간 靑年들의 거센 물결”이라고 이때를 회상했을 때, 그 물결은 안국동-건지동-종로 네거리로 이어지던 사회주의 청년들의 물결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리고 <봄이 오는 구나-사랑하는 동모야>에서 “너와 내가 젊은 기운이 타오른 xx(종로)로 발길을 날리든 / 鐘路 이 길 이 街里를 걸어가며 간 네가 주는 눈물을 먹고 있다”며 잡혀간 동무를 기억하고 걷는 그 길 역시 안국동에서 종로 네거리로 이어지던 바로 그 길이었다. 즉 종로 네거리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민족해방운동의 열정을 앓았던 장소였다. 이 시의 청년들도 종로 네거리에서 이러한 변혁의 열정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는 상황이 나빠지면 급히 몸을 숨길 은신처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피마(避馬)골이라는 골목길을 두고 있었던 종로 네거리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종로 1정목에서 6정목까지 큰길 양쪽

- 8) 1929년 당시 종로에 위치한 주요 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신간회 본부, 신간회 경성지회, 근우회,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당, 천도교청년총동맹, 천도교여성동맹, 조선농민사, 조선불교청년회, 조선물산장려회, 고려발명협회, 조선공학회, 서울청년회, 경성청년연합회, 사회주의동맹, 전진회, 적박단, 카프, 신흥청년동맹, 한양청년동맹, 조선노동당, 경성무산청년회, 경성목공조합, 경성노동연맹, 경성인쇄직공조합,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 조선형평사 총본부 등(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해안, 2004, 54~64쪽 참조).
- 9) 정재정·염인호·장규식,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해안, 1998, 266쪽.
- 10) 이후 1926년 12월 출범한 통일 조선공산당 ML당은 조선지광사(청진동 95번지)와 정우회 회관(경운동 96번지)을 양대 거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반경은 서울청년회(종로 네거리-건지동-안국동)와 화요회·북풍회(낙운동-경운동-재동)의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었다(장규식, 앞의 책, 48~67쪽).

뒤편에는 예전 시전행랑 한두 채 간격을 두고서 거의 일직선으로 큰길과 평행을 이루며 좁다란 골목길이 나 있었다. 피마골이라는 이곳의 이름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고관대작의 큰길 행차를 피해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 말머리를 돌려 접어들었던 골목길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때문에 이 속은 일찍부터 서민들의 거리로 발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팔죽집, 떡집, 탕반집, 설렁탕집, 선술집, 앓은술집, 색주가 등이 집중되어 있었다.¹¹⁾ <네 街里의 順伊>의 “골목뒤에서 의론하고”라는 구절처럼, 청년들은 네거리에서 투쟁하다가 상황이 불리할 때는 일경을 피해 이 골목으로 몸을 피신하여 뒷일을 도모했다. 이렇게 난마처럼 뻗어있는 골목길까지 합치면 종로는 수많은 곳으로 뻗어있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을 잡아간 “도××”(도적놈-인용자)은 종로경찰서(종로 2정목 8번지. 이후 1929년 10월 공평동 163번지로 이전)에서 파견된 이로 보인다. 당시 종로 YMCA회관 서편에 있던 종로경찰서는 일개 경찰서 수준을 넘어 불의한 일제 공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3·1운동, 조선공산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좌익사건, 신간회 민중대회 사건에 이르기까지 숱한 시국사건들이 종로경찰서에 의해 연출되었다.¹²⁾ 종로경찰서는 임화가 김기진·김남천과 더불어 1935년 카프 해산계를 제출한 곳이기도 했다. 시에서 감옥에 갇힌 청년이 손가락으로 달력을 그려 넣는 그 벽은 종로경찰서 유치장 벽으로 보인다. 이는 김광섭 시인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기 직전 벽에 <이별의 노래>라는 시를 손톱으로 새겼다는 그 벽을 연상시킨다.¹³⁾ 이렇게 광장과 같은 종로 네거리는 네거리로 나선 이들을 수인(囚人)으로 유폐시키는 밀실을 바로 곁에 두고 있었다.

본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길게 서술하는 이유는 다음의 점들을 강조하

11) 장규식, 앞의 책, 80쪽.

12) 장규식, 앞의 책, 65~67쪽.

13) 김광섭, 『나의 옥중기』, 창작과비평사, 1976, 106쪽.

기 위해서다. 이러한 세세한 정황들은 임화가 이 시에서 형상화 한 계급 투쟁이 민족해방운동이고, 이것이 카프1차방향전환의 과제와 직결되는 점을 해명하는 근거가 된다. 즉 이 시에서 종로라는 구체적인 배경과 거기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을 형상화하게 되면서 임화는 당대 카프 문예론의 과제였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는 계급의 모습을 시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 하여 ‘조선의 현실을 무시한 계급의식’이나 ‘계급의 식과 매개되지 않은 막연한 민중주의’로 분열되었던 이전 시의 경향을 극복하게 된다.

이 시를 쓰기 이전까지 임화의 시는 ‘민족해방투쟁을 선도해나가는 성장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모습’을 형상화 하지 못했다. 그가 <담-1927> <탱크의 출발> <젊은 순라의 편지>에서 계급의식을 강조했을 때는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분리주의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관념적인 경향으로 치달았고(이 시들에 나타난 배경은 그저 머리로 학습된 추상적 공간이었을 뿐, 구체적인 경험과 매개된 장소는 아니었다), <초상> <혁명>에서 조선의 현실을 주목했을 때는 맑시즘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연한 민중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민족해방투쟁이 전개되는 종로를 시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극복된다. 하여 민족단일당인 신간회의 지도하에 조선의 민족적 정치운동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예술운동이 정치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¹⁴⁾는 점을 시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카프의 1차 방향전환은 당시 사회운동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던 방향전환에 영향을 받았다.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을 외쳤던 정우회 선언(1926.11) 이후 식민지 조선에는 사회운동의 이념적 분파성을 극복하고 전 민족적 해방 투쟁을 위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연합단체인 신간회라는 민족 통일 전선(1927.2.15)을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사회운동의 방향 전환영향 하에, 계급문학에서도 방향 전환의 문제가 심각

14) 「무산계급 예술운동에 대한 논쟁」, 『예술운동』 창간호, 1927.11.

한 주제로 대두된다. 이것이 소위 카프의 1차 방향전환이다. 이때 카프는 자신들의 투쟁이 신간회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¹⁵⁾ 그런데 신간회의 존재 뒤에는 세계혁명운동의 참모부 역할을 했던 코민테른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은 강력했다. 한편 유럽에서의 혁명은 점점 더 가능성이 희박해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은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에 희망을 걸고 식민지에 혁명의 불길을 붙이려고 하였다. 코민테른은 제국주의 격퇴를 위해 식민지 민족부르주아지의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그들의 혁명적 성격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¹⁶⁾ 이것은 중국의 국공합작이나 식민지 조선의 민족통일전선에 영향을 주게 된다.¹⁷⁾ 이런 점을 감안해본다면 카프에서 신간회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말은 민족해방운동에 주력하겠다는 말이 된다. “방향전환 이후의 정치 투쟁이라는 것도 결국 민족해방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¹⁸⁾이라는 한 연구자의 말처럼, 그때 강조되었던 정치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그래서 이 시기 강조된 ‘예술의 무기화’에는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계급의 모습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勤勞하는 모—든 女子의 戀人”, “勇敢한 산아회”, “미덥성 있는 이나라 靑年”으로 수식된 청년은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는 노동계급으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도일(1929.8) 이전까지 임화의 단편서사시는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는 노동계급’과 ‘이를 탄압하는 일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15) 신간회에 대한 강조점은 1차방향전환의 핵심에 있었던 이북만의 「예술운동의 방향전환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는가?」(『예술운동』 창간호, 1927.11)에 잘 나타난다. 조직과 대중을 도의시킨 방향전환을 주장했다고 비판받았던 박영희 역시 「문예 운동의 이론과 실제」(『조선지광』, 1928.1, 87~88쪽)에 오면 계급문학운동이 대중적 조직운동으로서 신간회의 노선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16) 권희영, 「코민테른의 민족·식민지논쟁과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역사비평』, 1988 겨울, 186~187쪽.

17)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3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회, 1997, 262~266쪽.

18)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90쪽.

속에서의 투쟁을 행복으로 삼고 미래를 기약함'이라는 내용이 패턴을 이루고 반복적으로 형상화 된다. 가령 투쟁주체는 청년과 순이(<네 街里의 順伊>), 오빠와 오빠의 친구(<우리 오빠와 화로>), 투쟁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지 열하루 만에 희생된 순봉이(<어머니>), 종로 거리에서 투쟁하다가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동무(<봄이 오는구나-사랑하는 동모야>), 6·1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가 일제의 고문 때문에 병감에서 죽은 동지(<病監에서 죽은 녀석>) 등으로 등장한다. 이들을 탄압하는 적 역시 막연한 부르주아가 아니라, 도적놈(<네 街里의 順伊>), 놈(<病監에서 죽은 녀석>), “문지방을 때리는 쇠소리 바루르 뽀는 거치른 구두 소리”(<우리 오빠와 화로>) 등과 같이 당시 조선의 거의 모든 것을 강점한 일제로 설정된다. 그리고 투쟁 주체들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분노하고 지속적인 투쟁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으로 여긴다. 임화가 1929년 1월에서 1929년 7월까지 쓴 단편서사시 5편에는 이러한 틀이 선명하게 형상화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무산자파의 일원이 되어 계급 일변도로 나아가는 도일¹⁹⁾ 이전까지 임화의 단편서사시는 카프 1차방향전환의 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네 街里의 順伊>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病監에서 죽은 녀석>²⁰⁾에서 그 정점을 드러낸다.

19) 도일 이후 임화는 불세비키화 노선에 발맞추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계급적 기초를 명확히 한 전위노동자를 시 속에 형상화한다. 이때 임화는 전(前)시기에 노출한 연애욕망을 냉철한 눈으로 비판하고, 붉은 연애는 물론 인간적인 감정에 연연하는 것마저도 노동자의 생활감정과 동떨어진 소시민적 감상으로 억압한다. 이러한 자기비판 아래 전위노동자의 사내다움을 강조한 <양말 속의 편지>, 동료 노동자를 불사조로 호명하여 역사의 겨울에 맞서 투쟁할 것을 외친 <제비>와 같은 시를 쓴다.

20) 특히 이 시는 민족해방운동을 계급주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6·10만세 운동을 실행하게 된 원동력을 “‘일리치 레닌’의 쇠 같은 얼굴”에서 찾은 시 전반부와, “6월 10일은 우리들 조선의 프롤레타리아의 가슴에서 영구히 스러지지 않는으리라”라고 한 시 후반부는 이러한 점을 특히 잘 나타낸다. 즉 이 시는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민족해방운동을 코민테른 2차대회에서 이를 지지한 레닌과 연

Ⅲ. 1930년대 중반의 종로, 이식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장소

<네 街里의 順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로는 조선인들의 거리였고, 민족해방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곳이었다. 그러나 <네 街里의 順伊>와 6년 정도의 시차를 두었고, 1935년 카프해산계가 제출된 직후 임화가 시화한 <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종로 네거리의 모습은 급변해 있다.

지금도 거리는
數 많은 사람들을 맞고 보내며,
電車도 自動車도
이루 어디를 가고 어디서 오는지,
흔히 분주하다.

네거리 복판엔 文明의 新式 기계가
붉고 푸른 예전 깃발 대신에
이리 저리 고개를 돌린다.
스텝——注意——꼬——
사람, 車, 動物이 똑 기예(教練) 배우듯한다.
거리엔 이것밖에 變함이 없는가?

낮선 建物들이 普信閣을 저 위에서 굽어본다.
옛날의 점잔은 看板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그다지도 몹시 바람은 거리를 씻어 갔는가?
붉고 푸른 ‘네온’이 지렁이처럼,
지붕 위 벽돌담에 기고 있구나.

(중략)

관시하고 있으며, 6·10만세운동이라는 민족해방운동을 계급운동사의 성과로 수용하고 있다.

변화로운 거리여! 내 故鄕의 鐘路여!
 웬일인가? 너는 죽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는가?
 나를! 일찌기 뛰는 가슴으로 너를 노래하던 사내를,
 그리고 네 가슴이 메어지도록 이 길을 흘러간 靑年들의 거센 물결을,
 그 때 내 불쌍한 順伊는 이곳에 었더져 울었었다.
 그리운 거리여! 그 뒤로는 누구 하나 네 위에서 靑年을
 ×긴 원한에 울지도 않고,
 낮익은 行人은 하나도 지내지 않던가?
 - <다시 네거리에서> (『현해탄』, 동광당, 1938.2) 부분

1925년 경복궁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준공을 전후한 시점부터 청계천 이남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인들의 북부 진출이 본격화된다. 일본인들은 종로의 땅을 사고 종로로 진출하여 오뎅집, 우동집 같은 점포를 연다. 그리고 1920년대 말부터 종로거리에는 낯선 모습의 인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평퍼짐한 모자, 두툼한 각테안경에 폭넓은 넥타이, 나팔바지에 줄을 세운 양복, 코높은 백구두에, 팔목에 단장을 걸친 ‘모던보이’와 단 발에 눈썹과 볼 화장,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무릎에 걸치는 스커트 양장에 실크스타킹, 뽀족구두로 치장한 ‘모던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유한계급의 후예들이었으며, 일제 문화정치의 산물이기도 했다. 종로에는 이들을 주 고객으로 한 카페, 다방, 레스토랑, 영화관, 극장, 당구장 등이 유행하게 된다.²¹⁾ 이렇게 종로는 이식자본주의의 공세 아래 1930년대 들어 자본주의의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임화는 네온사인인 휘황찬란한 밤 시간에 종로 네거리를 찾는다. 이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네거리를 찾은 임화는 종로의 급격한 지형변화를 목도한다. 신호체계에 맞추어 기예를 부리듯 오가는 자동차, 전차, 우마차의 물결, 보신각을 굽어보는 낯선 고층 건물들,²²⁾ 지렁이처럼 지붕 위를 기어 다니며 불야성을 이루는 네온사인간

21) 장규식, 앞의 책, 73~75쪽.

판. 이것들이 모여 종로 네거리는 “변화로운 거리”로 치장되어 있다. 임화는 종로 네거리에 서서 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핀다.

종로 거리를 메운 사람들은 <네 街里의 順伊>에서 묘사했던 청년들이 아니다. 그들은 건지동에서 종로 네거리 쪽으로 몰려나오던 “靑年들의 거센 물결”, “장꾼같이 웅성대며, 확 불처럼 흩어지든”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로 네거리와 같은 광장에서 변혁운동에 투신하는 열정을 청춘의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1920년대의 이 거리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청년을 ××긴 원한에 울지도 않”는다.

“낮익은 行人은 하나도 지내지 않던가?” 또는 “새世代의 얼굴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구절에서 암시되듯이, 이 시에서 임화가 대면하는 종로 네거리의 사람들은 1920년대 종로와 철저히 유리된 이들이다. 그들이 누구라는 점은 시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전술한 모던보이나 모던걸과 같이 이들, 혹은 자본주의의 시간표에 맞추어 종로 네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상업도시가 제공하는 화려한 시각문화의 구경꾼이 된 채 그 변화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즐길 것이며,²²⁾ 혹은 ‘시간은 돈’이라는 관념 아래 교통의 요충지인 종로 네거리를 서둘러 빠져 나가려 할 것이다.

종로의 이러한 변모는 마치 1880년대 이후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프랑스대혁명부터 파리 꼬뮈네 이르기까지의 파리처럼 도시 사람들이 변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했던 도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22) 1930년 전후만 해도 종로거리에는 중앙 YMCA회관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건물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종로에는 대형 상업건축물이 하나씩 들어선다. 1932년 1월에 문을 연 동아백화점 4층 건물, 종로 2정목 91번지의 영보빌딩 5층 건물, 1935년 1월부터 신축공사를 하게 된 화신백화점 7층 건물, 화신백화점 건너편이 한청빌딩 등과 같은 건물들이 종로에 들어서게 되었다(장규식, 앞의 책, 76~77쪽).

23)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이 변화로움은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역동성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물들이 겪은 것일 뿐이다.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45~46쪽.

파리 코뮌과 피의 주일과 같은 혁명의 실패 이후 파리 군중들은 자본주의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구경거리에 현혹된 새로운 군중으로 탄생한다.²⁴⁾ 그때의 파리를 메운 군중처럼, 종로에 모인 사람들 역시 종로의 이전 모습을 지우고 들어선 이식 자본주의의 스펙터클(spectacle)을 자신들의 삶의 조건으로 유보 없이 수용하고 있다. 하여 그 거리에 서려 있던 구체적인 삶과 역사의 기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²⁵⁾

이런 현실을 두고 임화는 “불상한 都市! 鐘路 네거리여!”라고 외친다. 임화는 <네 街里의 順伊>에서도 “불상한 都市 鐘路”라고 말한 적 있다. 그때는 국권상실로 인해 서울의 종로가 불쌍하게 보였지만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네 가슴이 메어지도록 이 길을 흘러간 靑年들의 거센물결”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일제의 사상 탄압과 증대되어간 이식 자본주의의 압박 아래 이제 종로에는 그러한 변혁의 열정마저도 사라져버렸다. 낯익은 종로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가 버린 듯한 그 현실에서 임화는 “피로와 슬픔과 검은 절망”을 거듭 느끼게 된다. 광장과 같은 그 네거리에서 사방이 짙은 막힌 밀실로 윤택된 듯한 단절감을 느낀 뒤, 그만 길을 잃고 만다.²⁶⁾

이러한 세태에 맞서 임화는 “나는 뉘우침도 付託도 아무 것도 遺言狀

24) Vanessa R. Schwarts, 노명우·박성우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48~49쪽과 303~304쪽.

25) 스펙터클이란 현대적 생산조건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출현하는 실재(the real)를 은폐하고 추상화시킨 장관 또는 이미지를 일컫는 용어다. 『스펙타클의 사회』(The Society of spectacle)에서 기 드보르(Guy Debord)와 같은 상황주의자가 이 용어를 문제시했던 이유는, 현대사회에 지배적인 스펙터클이 구체적인 삶과 체험의 조건들을 주체들로부터 소외·물화·분리시키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허구적으로 통합한다는 데에 있었다(Guy Debord, 앞의 책 참조).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임화는 1930년대 종로에서 이러한 징후를 읽어내고 있다.

26) 임화는 1938년 『현해탄』을 발간했을 때, 1934년 이전에 쓴 시들 중 유일하게 <네 街里의 順伊>를 <네거리의 順伊>로 개작하여 시집에 상梓한다. 그 이유는 이 시가 특별히 잘 쓰거나 애정이 갔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다시 네거리에서>와의 비교 하에 급변한 종로 네거리의 풍경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집에 재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적지 않으리라”라며 유언장을 쓰는 듯한 비장한 각오로 이러한 변화에 편승할 수 없다고 외친다. 물론 카프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보였던 경직성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했지만, 그에 앞서 부박한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계급적 신념부터 굳건하게 다져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카프 조직체에는 박영희와 백철같이 그러한 세태에 몸담고 사회주의리얼리즘을 곡해하여 전향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임화의 이러한 발언은 종로의 이전 모습을 은폐한 이식자본주의의 스펙터클이나 그러한 변화에 부박하게 편승하는 세태에 맞서 혁명적 열정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

스펙터클에 맞서고 있는 이 모습은 임화가 자본주의 극복에서 자본주의 근대 수용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쓴 <상륙>(1938)과 대조적이다. <상륙>은 생산력 중심주의라는 진보사관에 현혹되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지우고 들어선 이식자본주의의 스펙터클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스펙터클에 대한 대항은 그 장소와 끈끈한 친연성을 맺고,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지층을 꿰뚫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후 임화는 스펙터클이 되어버린 종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의 근거를 자연의 순환원리에 기대어 찾으며 계급적 신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려 한다. 이는 <세월> <암흑의 정신> <주리라 네 탐하는 모든 것을> <가을 바람> 등 1934-1936년 사이에 씌어진 많은 시들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된다.²⁷⁾ 그러나 그것은 객관 현실을 외면하고 계급적 신념만을 앞세운 것이었기에 주관 편향의 폐단을 낳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임화는 1937년 이후 주객변증법의 리얼리즘론을 외친 글에서 자신의

27) 이 시들에서 임화는 자신이 직면한 침체된 국면을 ‘겨울’ ‘밤’ ‘물길에 끊긴 강’으로, 계급해방의 순간을 ‘봄’ ‘아침’ ‘바다’에 빗대어 형상화 한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 도래하는 봄’ ‘밤뒤에 도래할 아침’ ‘지난한 흐름을 통해 도달하는 바다’처럼, 고통스러운 현재를 극복한 뒤에 마침내 계급해방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드러낸다.

시가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규정하려는 逆倒된 방법”에 빠져 있었음을 비판하게 된다.²⁸⁾ 하여 임화는 ‘현해탄 연작’에서 자신의 앞서간 신념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실천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다시 네거리에서>에 나타난 종로의 변모상은 임화가 자연의 순환원리에 기대어 계급적 신념을 전면화한 주관편향으로 나아가고, 다시 이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하여 현실의 물적 토대에 맞는 변혁론을 설정하게 되는 도정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V. 해방기의 종로, 머뭇거림과 용기의 장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선의 해방이 독자적 역량에 의하여 전취되지 아니하고 국제관계의 상극에 의하여 초래되었다”²⁹⁾는 임화의 고백처럼, 해방은 타율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러나 일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기는 역사의 진보를 향한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임화에게 있어 시는 역사의 방향성을 확인 가능한 현실의 자리에서 객관 현실의 모순에 맞서는 주체의 신념을 드러내는 장르였다.³⁰⁾ 그래서 1939년 이후 절필했던 임화에게 있어 역사의 방향성과 진보적 도정이 가능해진 그 시점은 시를 다시 써야 하는 시점이었다.

임 화: 머리 속에 현실을 포착할 힘이 없습니다. 현실은 혼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만을 쓰는 것이 현실의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28) 임화, 「사실주의의 재인식」, 『동아일보』, 1937.10.8~14.

29)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24쪽.

30)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허정, 「1930년대 중후반 임화 시와 비평의 관계」,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4, 357~359쪽 참조.

생각합니다. 헌데 근자에는 해방 이후 것만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 이전의 것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³¹⁾

1945년 12월 12일 아서원에서 열린 위 좌담에서 임화는 해방기 문학의 경향을 비판한다. 여기서 임화는 8·15 이후 발표된 문학이 혼란한 해방기의 현실에만 집착하여 현실의 본질을 놓치고 있음을 비판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방기의 현실을 해방 이전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임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였다. 해방기의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임화 역시 해방 이전의 현실을 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부면에 떠오른 장소가 바로 이전에 지속적으로 시화해온 종로였다. 종로는 식민지 시대와의 연속성 아래 해방의 의미와 문학적 과제를 캐묻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임화가 38세의 나이로 해방기의 종로를 시화한 아래의 시에는 바로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朝鮮 勤勞者의
偉大한 首領의 演說이
流行歌처럼 흘러나오는
‘마이크’를 높이 달고

부끄러운
나의 生涯의
쓰라린 記憶이
鋪石 마다 널린
서울 거리는
비에 젖어

아득한 山도
가차운 들窓도

31)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 『예술』 3, 1946.1; 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130쪽.

眩氣로워 바라볼 수 없는
鐘路 거리
저 사람의 이름 부르며
偉大한 首領의 萬歲 부르며
개아미 마냥 모여 드는
千 萬의 사람

어데 선가
외로이 죽은
나의 누이의 얼굴
찬 獄房에 숨 지운
그리운 동무의 모습
모두 다 살아오는 날
그 밑에 戰死하리라
노래 부르든 깃발
자꾸만 바라보며

자랑도 財物도 없는
두 아이와
가난한 안해여

가을 비 차거운
길 가에
노래처럼
죽는 生涯의
마지막을 그리워
눈물 짓는
한 사람을 爲하여
願컨대 勇氣이어라.

- <九月 十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찬가', 백양당, 1947.2) 전문

종로거리는 감격스런 해방을 맞이한 서울시민들이 운집한 장소였

고,³²⁾ 1960년대까지 서울의 경축행사가 거의 예외 없이 치러지던 장소였다.³³⁾ 1945년 9월 11일 재건된 조선공산당 역시 9월 12일 종로에서 재건 경축행사를 갖고 종로 네거리로 시가행진을 벌였다. 임화는 그 행렬이 종로 네거리를 지날 무렵의 풍경과 그때의 감회를 위의 시에서 토로하고 있다.

종로 네거리에는 이 경축행사를 맞이하여 조선공산당의 1인자 박헌영의 연설이 울려 퍼지는데, 이 때 그곳은 “偉大한 首領의 萬歲 부르며 / 개아미 마냥 모여 드는 / 千 萬의 사람”들로 들끓는다. 이 날은 식민지 시기 동안 숨죽여 불러야 했던 박헌영의 이름을 종로 네거리라는 광장에서 소리쳐 외칠 수 있는 감격스러운 날이었다.³⁴⁾ 더구나 임화는 코민테른의 12월테제에 의거하여 노동자 농민에 기반을 둔 전위적 공산당을 재건하려 했던 무산자파의 일원이었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당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 말기를 보냈지 않았던가? 임화에게 있어 조선공산당의 재건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³⁵⁾

32) 종로구 편, 『종로구지』 상, 종로구, 1994, 570~571쪽.

33) 권오만, 『서울을 시로 읽는다』, 해안, 2004, 77쪽.

34)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은 재건된다. 이때 당내 총비서라는 직임을 가졌던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의 제1인자에 오른다(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218-219쪽). 해방 직후부터 종로 네 거리에는 박헌영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종로 네거리에는 박헌영이 출현하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지도할 것을 촉구하는 비라가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15일부터 붙었는데, 임화도 이 광경을 직접 목도한다(임화, <인물소묘, 박헌영>, 『신천지』, 1946.2). 해방 후 임화는 박헌영이 수령으로 있는 조선공산당과 그 후신인 남로당의 노선에 서있었다. 이 시기 임화의 시에서 중요하게 형상화되는 민전, 전평, 청춘, 학병 등은 조선공산당 산하 조직이거나 그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임화가 박헌영의 노선을 추종했다는 점은 인용시 외에도 <박헌영 선생이시여 우리에게 오시라> <박헌영 선생이시여 『노력인민』이 나옵니다>와 같은 시, 박헌영이 조선 민족 속에서 접하는 비중이 소련에서 스탈린 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 산문 <인물소묘, 박헌영>, 안희남의 소설 <폭풍의 역사>가 민전의 입장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서간문 「임화씨로부터 안희남씨에게」에서도 잘 드러난다.

35) 물론 이보다 앞서 이영, 정백, 이승엽, 서중석 등이 8월 16일 장안빌딩에서 결성

그런데 이 시에서 유의할 점은 이 순간, 임화가 군중의 행렬 속으로 들어가 감격을 구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카프 해체 직후에 쓴 <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임화가 군중의 물결 속에 몸을 담지 못했던 이유는 혁명적 열정을 잃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임화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과 거리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다.

먼저 임화는 일제 말 자신의 행적 때문에 머뭇거린다. 인용시에서 임화는 종로 네거리 곳곳에 서린 “쓰라린 記憶”을 발견하고 이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것은 일제 말 소극적이거나 일제에 협력한 이력³⁶⁾에서 기인하는 부끄러움이었다. 1945년 12월에 개최된 봉황각 좌담에 잘 나타나듯이 임화가 “자기 비판의 양심”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승리와 일제와의 타협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자기비판을 감행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³⁷⁾ 이 시에는 <네 街里의 順伊>에서 변혁운동의 대열에 있었던 누이와 동무가 희생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생각하면 그 부끄러움은 배가된다. 그런 이력 때문에 이 날 열화(熱火)와 같이 뻗쳐오르는 혁명의 열기에 몸을 담지 못하고 임화는 어느 건물 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그 대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현기증까

한 장안과 공산당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제시대 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이탈한 이들이었고, 그들이 만든 당은 강령과 규약은 물론, 당면 활동 목표조차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하부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17-18쪽).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당이었다

36) 임화는 일제말 사상보국연맹, 조선문인보국회에 가입하여 국책에 부응했고, 전시영화 대본을 교열했으며, 총력연맹 문화부장 야나베와 총동원체제 하에서 문화의 적역봉공 방도를 놓고 대담을 한 바 있다.

37) 『문학자의 자기비판』, 『인민예술』 2, 1945.10; 송기환·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2, 태학사, 1991, 168-169쪽. 김윤식은 내적 고백형식의 전통이 빈약한 우리의 지적 풍토와 해방기 문학의 강한 정론성 때문에 임화가 봉황각 대담에서 보인 자기비판이 내면화되어 작품화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김윤식, 앞의 책, 578쪽). 하지만 임화의 이 작품은 깊은 고뇌에 사로잡힌 한 문학인의 내면을 잘 보여준다. 처자식까지 언급하며 내면의 깊은 고뇌를 드러내는 이 시의 진술을 포즈라고 보기 어렵다.

지 느낀다. 종로거리에 내리는 비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자의 심정을 더욱 착잡하게 만든다. 이런 부끄러움은 긴 휴지(休止)로 인하여 갈등과 머뭇거림의 파동이 잘 느껴지는 짧은 시행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점 때문에 해방기가 문학의 정론성이 강화되는 시기였고,³⁸⁾ 시 장르의 발 빠른 대응을 상정하고 있었던 임화였지만,³⁹⁾ 8·15라는 감격적인 해방을 곧바로 노래하지 못하고 9월 12일에 이르러 다소 늦게 시를 창작하게 된다.⁴⁰⁾ 그것도 부끄러움을 전면에 내세운 시를. 임화가 이후의 시에서 인민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우리’라고 서슴없이 부르며 인민공화국 건설에 대한 열망을 시 속에 형상화하기까지는 이러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으로 임화는 현실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 아래 머뭇거리고 있다. 이는 1937년 이후 깨달은 조선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카프의 2차방향전환인 볼셰비키화를 주도해나갈 무렵(1930년)부터 임화는 자본주의 제3기론에 입각하여 난숙한 자본주

38) 이것은 당시 조선 정세에서 “문화가 정치와 불가분의 존재”이자 “정치가 모든 생활관계의 집중적 표현이란 말이 지금처럼 사실화되어 나타날 시기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본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임화, 『문화전선』, 1945.11; 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31쪽)나 “문화도 예술도 이러한 때는 하나의 정치였다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본 「조선에 있어 예술적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하여」(『문학』, 1946.7; 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 태학사, 1991, 375쪽)에 잘 드러난다.

39) 이는 다음 발언에 잘 나타난다. “시가 먼저 發見하고 小説이 그 뒤에 이것을 形成해 간다. — 이렇게 새 時代가 文學 우에 反映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想像할 수도 있다. / 새 時代의 感情과 氣分과 知的狀態를 直感하는데 詩는 아무래도 小説보다 一步 長하기 때문이다.”(임화, 「詩壇의 新世代」,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491쪽).

40) 1945년에 임화는 시를 거의 쓰지 못한다. 1945년 11월에 가서야 <갈-지금은 없는 전사 김치정 동무에게>와 같이 무산자 동료로 활동하다가 일제시대 희생된 이에 대한 부채감을 형상화 한 추모시 한 편을 쓸 뿐이다. 그 외 인민이 등장하는 <해방 조선의 노래>(『문화전선』, 1945.11)라는 작품이 있지만, 이는 노래 가사로 씌어진 작품이다.

의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런 믿음 하에 서구나 일본과 다른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주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혁명운동의 참모부였던 코민테른 6차대회의 좌편향적 시각에 기대어 갖게 된 판단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물질 토대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도모할 단계가 아니라 아직 부르주아혁명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격소설론」의 대목을 빌어 표현하자면 당시 식민지 조선에는 “西歐의 意味의 完美한 個性으로써의 人間 또는 그 基礎가 되는 社會生活이 確立되지 不”고 있었다.⁴¹⁾ 임화는 이런 현실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부르짖는 것이 시기상조였고, 그 전단계로서 근대적 과제(봉건유제 척결에 기반 한 부르주아혁명의 과제)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⁴²⁾

그래서 종로 네거리에 준비한 자본주의 문명을 앞에 두고 짙은 비에 감을 드러내던 <다시 네거리에서>와는 대조적으로 ‘현해탄’ 연작에서는 자본주의적 근대 수용과 실현을 소리 높여 외친다. 앞서 언급한 <상륙> 역시 이러한 맥락에 서있는 시였다. 사회주의자였던 임화가 1937-1938년 무렵 ‘현해탄 연작’, 「개설 신문학사」 등에서 아시아적 정체성(停滯性)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식민주의의 위협 아래 노출된 근대적 과제를 이식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41) 임화, 「본격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375쪽.

42) 본고에서 기술하는 1937년 이후 임화의 변모에 대해서는 김재용의 견해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김재용은 중일전쟁 이후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고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임화가 당시 역사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영향 아래, 조선적 특수성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전의 자세를 바꾸어 조선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변모했다고 본다. 나아가 김재용은 이러한 조선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화가 12월체제의 좌적 해석에서 벗어나, 조선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환할 단계가 아니라 봉건적 유제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다고 본다(김재용,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2, 한길사, 1996, 38-39쪽).

있었다. 즉 임화가 근대 실현을 주장한 이유는 조선사회에 근대를 성취한 뒤,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나아간다는 역사발전 단계론의 수순을 밟기 위해서였다.⁴³⁾

이렇게 임화는 1937년 이후부터 관념적 국제주의로 치닫기보다는 조선적 특수성(소련이나 일본과는 달리 당대 조선의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성찰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모했다.

-
- 43) 임화가 주장한 이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민족의 주체성을 결여한 사대주의로 비판하는 쪽(김윤식, 앞의 책, 509-527쪽)과 그 초점이 문화 이식과 문화 창조의 변증법적 과정에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 문학 사관을 확립했다고 보는 쪽(신승엽,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75-108쪽)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식을 주장한 임화의 진의는 자신이 견지했던 역사발전단계론의 관점을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철시키는 데 있었다고 본다. 즉 이것은 근대화지상주의자나 민족주의자로서 외쳐진 것이 아니라, 조선의 특수성을 고찰하면서 단계론적 사유로 변모한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지만 이 시기 문학과사에서 갑작스럽게 근대문명수용과 이식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이식에 관한 그의 주장은 카프 가입 이전 당시 유행하던 조타모를 사 쓰고 본정을 배회하던 모던 보이 임화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아시아의 정체성을 타파하기 위해 식민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한 이 시기 임화의 입장은 그것이 결국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 주변부에 종속시키고 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재판 연작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화는 식민주의의 폐해를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무시하고 도일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민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한 랑스의 시각이 심각한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한 것이었듯이(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개정증보판, 271-272쪽), 여기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임화의 시각 역시 오리엔탈리즘에 물든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를 받아들이려는 임화의 입장은 ‘일본적 특수성=보편’ ‘여타 아시아적 국가의 특수성=정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시각(姜尙中, 임성모 외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94-109쪽)에도 물든 것이었다. 임화의 이런 시각은 해방기에 이르러 교정된다. 해방기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는 혁명단계론을 유지한 점은 1937년 이후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 무렵 임화는 일제가 이식한 근대는 조선의 봉건유제를 그대로 두고 식민지적 착취로만 자리했기에 일제가 지배하는 한 민주주의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었다(임화, 『민주주의 민족전선-통일전선의 민주주의적 기초』, 『인민평론』, 1946.3)며 식민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했던 이전의 시각에서 벗어난다.

현실의 구체적인 물질 토대를 고려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부르주아혁명에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을 외면한 이전의 태도를 반성했다. 더군다나 파시즘이 맑시즘을 격퇴시킨 1938년 하반기 이후에 이르게 되면 임화는 역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생활의 자리에 유폐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반성과 좌절을 겪었던 임화가 역사의 진보적 도정이 가능해진 해방기를 맞이하여 이전처럼 들뜬 채로 그 가능성의 공간을 질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비록 일제가 물러갔지만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감격에 들떠 현실을 과장하는 것은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로에 모인 그 군중들은 인민연대를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한 과제였던 인민공화국 수립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하는 이들이었다.⁴⁴⁾ 그러나 임화는 그 들뜬 군중에게서 조선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거의 자신을 엿볼 수 있었다. 들뜬 경사면을 드러내고 거기에 휩쓸리기 이전에 현실의 구체성을 따져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임화는 머뭇거리고 있다.⁴⁵⁾

이런 머뭇거림 끝에 임화는 “원컨대 용기이어라”처럼 종로 네거리에

44) 해방기 조선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내세우는 장안파의 극좌노선으로 비판하면서, 반제 반봉건 투쟁을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운다(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선공산당 1945년 8월테제』, 1945.9.25; 송기한·김외곤 편, 앞의 책 3, 229-230쪽). 해방기 조선공산당이 채택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먼저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하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창출하는 국가권력(인민정부)을 만들어낸다. 그 뒤 인민정부가 구체화된 인민공화국을 통해 노동자·농민의 독재를 이룩한 뒤,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한다(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조선 인민공화국(1945.8-1945.12)」, 『한국사학보』 9, 2000.9, 339-340쪽. 343쪽).

45)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해방기 임화가 드러낸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노선은 조선공산당 8월테제의 영향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당시 사회운동의 직역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말 임화의 깨달음에서 연유된 바도 크다. 1930년대 말 이후의 생각이 해방기 조선공산당의 입장과 자연스럽게 일치를 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서기 위해 용기를 내자고 다짐한다. “노래처럼 / 죽는 생애의 / 마지막을 그리워”와 같이 희생된 이들과 처자식을 걸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다. 그 정도의 진지함 없이 종로 네거리에 나서는 것은 가식이라는 뼈아픈 각성, 인민공화국 건설의 과제 역시 그런 각오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이 여기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반성과 신중한 현실대면의 시간을 가진 뒤, 1945년 연말부터 임화는 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의 외곽조직이었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공산당의 후신이었던 남로당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적 격랑과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시를 창작하게 된다. 이때부터 임화는 자신과 혁명 대열 사이에 내재된 거리를 지우고 ‘우리’라는 집단적 화자를 서슴없이 내세우며, 악화되어가는 해방기의 상황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결의를 드러낸다.

V. 결론

이 글은 작가가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선택하는 문제가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작가의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종로를 중심 장소로 채택한 임화의 시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프의 1차방향전환에서 강조한 예술의 무기화는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계급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정우회 선언과 신간회 결성과 같은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국제적으로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을 강조한 일본의 복본주의, 나아가 아시아에 희망을 걸고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불길의 지피려고 했던 세계혁명운동의 참모부 코민테른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종로는 사회주의자의 주도

하에 민족해방운동의 열기가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네 街里의 順伊>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종로를 거점으로 펼쳐나간 민족해방운동을 당시 종로의 실상에 맞게끔 실감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하여 카프 1차방향전환의 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30년대 종로는 이식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장소로 변모한다. 종로거리에는 열화와 같이 불타오르던 혁명적인 청년들 대신, 스펙터클한 시각 문화에 낚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 <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임화는 이러한 세태에 맞서 계급적 신념을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이후 낭만정신론의 시화, 주객변증법의 리얼리즘으로 변모해나가는 임화의 시력을 고려해볼 때 이는 현실의 물적 토대에 맞는 변혁론을 설정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식자본주의의 스펙터클로부터 벗어나 종로의 이전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고투한 이 작품은, 스펙터클이 전면화되었지만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모습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되새겨보아야 하는 현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스펙터클에 맞서고 있는 이 모습은 임화가 <상록>에서 생산력 중심주의라는 진보사관에 현혹되어,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전 모습을 지우고 들어선 이식자본주의의 스펙터클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스펙터클에 대한 대항은 그 장소와 끈끈한 친연성을 맺고,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지층을 꿰뚫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

해방 후 혁명적 열정을 회복한 종로는 임화에게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장소였다. 하지만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협력으로 일제 말을 보냈던 과거의 이력과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과 실천적으로 교섭하는 과정에서 단계론적인 사유로 변모했던 1937년 이후의 도정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었다. 이때 자기반성과 신중한 현실대면의 자세가 부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때문에 임화는 <九月十

二日—一九四五, 또다시 네거리에서>에서 종로 네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1920년대부터, 카프해산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종로는 임화의 시에서 임화의 현실인식이나 실천적 의지를 새롭게 추동시키는 장소로 자리했다. 매시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종로의 모습은 달라졌고 거기에 대응하는 임화의 태도도 달랐지만, 그러한 변모 속에서도 사회주의 자로서의 관점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주제어 : 임화, 종로, 사회주의자, 민족해방운동, 스펙터클, 해방기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90쪽.
- 권오만, 『서울을 시로 읽는다』, 혜안, 2004.
- 권희영, 「코민테른의 민족·식민지논쟁과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역사비평』, 1988 겨울, 186-198쪽.
- 김광섭, 『나의 옥중기』, 창작과비평사, 1976.
-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조선인민공화국(1945.8-1945.12)」, 『한국사학보』 9, 2000.9, 337-383쪽.
- 김윤식, 『임화연구』 6판, 문학사상사, 2000.
- 김재용,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2, 한길사, 1996.
- 송기한·김외곤,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1-3, 태학사, 1991.
- 신승엽,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2000.
- 이기인, 「카프 방향전환론의 재검토」, 『한국언어문학』 52, 2004.6, 389~412쪽.
- 이명찬, 「네 거리를 고향으로 둔 시인의 운명」,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학회, 2001. 242~273쪽.
- 임정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 임규찬·한기형,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혜안, 2004.
- 전우용, 「종로와 본정」,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2001, 163~193쪽.
- 정재정·염인호·장규식,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1998.
- 종로구 편, 『종로구지』 상, 종로구, 1994.
-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

- 동문화연구』 3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회, 1997, 259~299쪽.
- 허정, 「1930년대 중후반 임화 시와 비평의 관계」, 『한국문학논총』, 한국
문화회, 2007.4, 337-363.
- 姜尙中, 임성모 외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개정증보
판.
- Guy Debord, 이경숙 역,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1996.
- Vanessa R. Schwarts, 노명우·박성우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Abstract>

Lim, hwa and Chong-no

Heo, Jung

This research analyzed about relation of Lim, hwa and Chong-no. The result is as following.

Late 1920s Chong-no, national liberation sports sprang up strongly under socialist's leading. "Sunee of crossroads" is materializing well these point.

In the 1930s, Chong-no undergoes a change to colony capitalistic place. evolutionary passion of young mans disappears in Chong-no. Instead, crowds which lose soul to sight culture that do spectacle in Chong-no overflow. "In crossroads again" is materializing well these point.

Lim, hwa should recover passion of revolution after release. And Lim, hwa should start newly as socialist in Chong-no. However, need to see past action Doedolikyeeo to cope properly at real. Because of this point, Lim, hwa was hesitating without jumping to Chong-no crossroads in "September 15".

In Lim, hwa's work, Chong-no was place that elicit his actuality awareness or practice. According to change of age, Chong-no's appearance changed. Accordingly, Lim, hwa's attitude changed. But, viewpoint as socialist was kept consecutively within such transfiguration. So this research analyzed how Chong-no materialized in Lim, hwa's work. Through this, this research cleared

transfiguration and consecutiveness of Lim, hwa's phenomenon concretely. This is sense of this research.

Key Words : Lim, hwa, Chong-no, Socialist, National liberation exercise, Spectacle, Release flag